

<동정자료>

국토부, “국민 생활 직접 도로철도 분야 미세먼지 총력 대응” 강조 1, 2차관 도로교통센터아산천안 건설현장용산역 찾아 미세먼지 저감에 만전 당부

- 박선호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6일(수), 한국도로공사 교통센터 및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하여 고속도로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.
 - 먼저, 교통센터를 방문한 박 차관은 터널 내 클린튜브* 시범 가동 상황, 영업소·휴게소 노면 청소차 가동 계획 등 고속도로 미세먼지 저감 종합 대책을 점검했다.
 - * 터널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외부로 내보내지 않고 터널 내 집진 필터로 여과하는 시설
 - 박 차관은 “사상 최초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6일 연속으로 시행되고 있는 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빈틈없이 대응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 - 아울러, “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복합휴게충전소 구축 등 고속도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계획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 이후, 아산천안 고속도로 건설 현장을 방문해 현장의 미세먼지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공사 관계자들을 격려했다.
- 한편, 김정렬 제2차관은 6일(수) 오후, 용산역을 방문하여 코레일로 부터 철도분야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보고받고, 용산역 공조 설비*와 소방 설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.

* 공기 조화 설비(공기 환기, 냉·난방 등 조절 설비)

-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“철도는 하루에도 수많은 국민이 이용하는 시설 만큼 환기나 청결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하며, 철도역사·선로·차량 내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할 것”을 강조했다.
- 또한, “물청소는 미세먼지 저감에 즉각적인 효과가 있는 만큼 대합실, 승강장, 맞이방 등 승객들이 주로 머무르는 장소에 대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여 물청소를 집중적으로 시행해 줄 것”을 주문했다.
- 한편, 같은 날 오후 4시 손명수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다중이용교통시설인 센트럴시티 터미널 현장을 찾아 미세먼지 대응방안을 점검하고 터미널 및 운수업체에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.

2019. 3. 6.

국토교통부 대변인